

[논단]

## 「사랑의 기쁨」에 나타난 혼인과 부부 사랑의 의미\*

■  
박 정 우

[가톨릭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신부]

들어가는 말

1. 문서의 배경과 특징
  2. 혼인과 가정, 사랑에 관한 기존 교회 문헌들의 내용
  3. 「사랑의 기쁨」이 가르치는 ‘혼인과 가정’의 의미
  4. 「사랑의 기쁨」이 가르치는 ‘혼인의 사랑’의 의미
- 나가는 말

### 들어가는 말

몇 년 전부터 ‘졸혼’(卒婚)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에서 이미 확산하고 있는 ‘졸혼’은 ‘혼인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주로 결혼한 지 30~40년 된 부부가 결혼은 유지하면서도 각자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신평속이다.<sup>1)</sup> 2016년 5월 한 결혼정보회사가 모바일 결혼정보서비스 회원 미혼남녀 5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sup>2)</sup> 전체의 57%가 졸

\* 이 글은 2018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1) ‘졸혼’의 유래는 2004년 일본의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졸혼을 권함』이라는 책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고 이후 유명인이 잇따라 ‘졸혼’ 선언을 하며 확산하였다. 참조: 박준용, “결혼을 졸업한다 [...] ‘졸혼(卒婚)’을 아시나요.” 2016.5.23. [www.sisapress.com](http://www.sisapress.com).

2) 참조: 같은 글,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모바일 결혼정보서비스 ‘천만모여’ 회원 548명(남 320, 여 228)을 대상으로 ‘졸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남성(54%)보다 여성(63%)이 자녀까지 독립했을 때 배우자에게 졸혼 의사를 전달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미래에 졸혼을 결심할 것 같은 이유는 ‘결혼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노후에 하려고’(57%)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배우자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22%), ‘사랑이 식은 상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 같아서’(18%) 순이었다. 또 ‘각자의 꿈을 향해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거나 자녀를 키우며 참고 있던 것을 하려고’ 혹은 ‘남편의 간섭과 집안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라는 응답도 있었다.

이런 응답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긴다. 과연 혼인서약이 이렇게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다해서 각자 ‘자유’를 찾아 떠날 수 있는 일시적, 형식적 제도에 불과한 것일까? ‘성하거나 병들거나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겠다는 약속은 그렇게 지키기 어렵고 무모한 것일까? 왜 혼인생활이 서로가 하고 싶은 것에 제약을 가하고 배우자끼리 서로 간섭하여 억압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되었을까?

사실 ‘졸혼’의 유행을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혼이 상당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3년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이 1.3건에서 1998년에는 2.5건, 2003년 3.5건까지 높아졌다가 차츰 줄어들어 2012년 2.3건, 2017년 2.1건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심각한 것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들의 ‘황혼이혼’의 증가인데, 1993년 전체 이혼 건수의 5.3%였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 28.7%, 2017년 31.2%에 달해 전체 이혼 건수의 3분의 1에 육박할 정도이다.<sup>3)</sup>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경험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평생 갈라질 수 없는 사랑과 신뢰의 서약을 통해 부부가 일치를 이루고 사랑과 생명의 요람인 가정생활을 통해 둘이 함께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는 가톨릭교회의 혼인관이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음을 알려

3) 통계청, 2017년 혼인 이혼 통계, 통계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2018.3.21.게시). 2017년 총 이혼 건수는 10만 6천 건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했다. 20년 이상 이혼 다음으로는 5년 미만 이혼으로 22.4%를 차지한다.

준다. 더구나 이미 서구 사회는 1960년대부터 혼인과 가정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가톨릭교회 안에서도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별거, 이혼, 가정폭력, 낙태 등 가정이 겪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혼인서약과 가정이 깨지고 난 후 부부가 겪는 갈등과 고통은 어떻게 치유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가톨릭교회는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사목헌장」을 통해 현대 사회가 겪는 심각한 문제 중에 가정과 혼인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꾸준히 가정, 혼인, 생명을 주제로 공식 문헌들을 발표하며 혼인과 가정과 관련된 교회의 가르침을 다양하게 전달해 왔다.<sup>4)</sup> 그러다가 2014~2015년 두 해 동안 열렸던 ‘가정’에 관한 주교 시노드의 결과를 반영한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이 2016년 4월에 반포되었다.<sup>5)</sup> 이 주교 시노드는 가정과 혼인에 관한 교회 가르침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교회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사랑의 기쁨」에도 교리적인 반복보다는 혼인과 가정에 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도와줄 사목적 배려와 영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랑의 기쁨」 2장에서 ‘가정의 현실과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날 지나친 개인주의 문화가 야기한 자신만의 고립과 왜곡된 자유관, 주관주의와 상대주의, 평생 서약에 대한 두려움, 손익을 따지는 관계, 출산을 기피하는 정서, 소비주의 등의 현상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진단한다. 교황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이혼, 사실혼, 동성결합 등의 문제도 지적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한 성별 정체성이 위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부

4)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개정판); 바오로 6세, 「인간 생명」,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8; 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가정공동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3; 요한 바오로 2세, 「가정교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5)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

재 등도 교회가 변화와 희망을 가져오기 위해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3장에서 ‘가정의 소명’, 그리고 4장에서 ‘혼인의 사랑’을 다룬다. 5장에서는 출산과 양육, 노인 문제를 다루고 6장부터 본격적으로 파경 위기를 겪는 가정, 이혼, 자녀 교육, 가족의 죽음, 혼종혼 등 사목적 관점에서 어려움에 처한 부부들을 돕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정의 위기의 근원은 부부사랑의 위기에서 출발하며, 부부사랑의 위기는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랑에 관한 복음적인 가치관의 결여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복음적 가치관 안에서 남녀간 사랑의 본질, 그리고 혼인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이 부부사랑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가톨릭교회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여러 차례 혼인과 가정에 관한 문헌들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일반신자들에게 전해지기에는 어렵고 딱딱한 측면이 많았다. 그런 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반포한 「사랑의 기쁨」은 보다 사목적이고 일상적인 관점에서 부부의 사랑을 설명하고 희망적인 길을 제시하는 장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사랑의 기쁨」이 반포되기까지 간단한 배경과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기존에 나왔던 혼인과 가정 관련 문헌들의 주요 내용을 먼저 정리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사랑의 기쁨」 역시 이 문헌들을 인용하고 있고 바탕이 되는 교리적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문헌들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의 기쁨」 중 ‘혼인과 부부 사랑의 의미’라는 주제에 맞춰서, 가정과 혼인, 부부 사랑을 다룬 3장과 4장의 내용을 정리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목적 관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부 사랑의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 1. 문서의 배경과 특징

2016년 4월 8일 발표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

쁨」은 2014년과 2015년에 열렸던 ‘가정에 관한 세계주교대의원회(주교 시노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문서이다. ‘가정의 사랑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것처럼 이 문헌은 오늘날 가정이 겪는 현실과 문제를 돌아보며 가정, 혼인, 부부 사랑, 자녀의 출산과 양육, ‘비정상적’ 상황에 있는 가정들에 대한 식별과 사목적 배려 등을 다룬다.

기존의 가정 관련 문헌들이 교리적이고 신학적으로 혼인과 가정의 본질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인 부부의 소명과 책임을 강조한 것과 비교하면, 「사랑의 기쁨」은 기존 교회 문헌과 함께 시노드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전하면서도, 비교적 평이한 문체로 프란치스코 교황 자신이 여러 곳에서 했던 연설과, 한국, 아르헨티나, 케냐, 호주, 이탈리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등 지역 주교회의가 했던 발표문을 인용하며, 지역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을 많이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기쁨」은 우루과이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마리오 베네데티의 시를 인용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과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그리고 영화 ‘바베트의 만찬’의 내용을 소개하는 등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물과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교황의 의도를 잘 담고 있다.

무엇보다 「사랑의 기쁨」에서 교황은 코린토 전서 13장 ‘사랑의 찬가’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각각의 구절의 의미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리스어 원 단어의 뜻을 풀어주며, 부부의 사랑에 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또한 문헌의 뒷부분에서는 현대사회의 가정이 겪고 있는 도전과 상처에 대해 사목적이고 영성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시하고 있다.

## 2. 혼인과 가정, 사랑에 관한 기존 교회 문헌들의 내용

「사랑의 기쁨」은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 하나인 「사목현장」 제2부 제1장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에서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혼인과 가정 공동체 문제를 다루

며 교회의 가르침을 정립한 이래, 같은 주제를 다룬 교회 문헌들, 즉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 생명」(196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정공동체」(1981년)와 「가정교서」(1994년)의 계보를 잇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 2.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1965년 발표된 「사목헌장」은 혼인제도와 가정공동체의 존엄성이 “중혼, 이혼의 만연, 이른 바 자유연애 또는 다른 기형으로 그늘”져 있고, “부부 사랑은 흔히 이기주의, 향락주의, 부당한 출산 거부로 더럽혀지고 있다고”고 지적하며 혼인과 가정공동체를 보호하고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47항). 「사목헌장」은 “창조 주께서 제정하시고 당신의 법칙으로 안배하신, 생명과 사랑의 내밀한 부부 공동체는 인격적인 합의로 맺은 결코 철회할 수 없는 계약으로 세워”지고 “부부가 자기 자신을 서로 주고받는 인간 행위”라고 혼인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또한 “혼인제도 자체와 부부 사랑은 그 본질적 특성으로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며, “혼인 계약으로 ‘둘이 아니라 한 몸’(마태 19,6) 남자와 여자는 인격과 행위의 내밀한 결합으로 서로 도와주고 봉사하며, 또한 자신들이 이룬 일치의 의미를 체험하고 날로 더욱 충만하게 한다”라고 설명한다(48항). 따라서 부부의 사랑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사이며,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을 바치는 사랑과 자녀 교육 등 부모의 숭고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들”며, “날로 더욱 자기완성과 상호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구원의 여정을 함께하는 것이다(48항).

「사목헌장」에서 다룬 혼인과 가정에 대한 가르침에서 이전 교회 문헌과 구별되는 점은 과거에 ‘혼인의 첫째 목적이 생명 전달(출산)’이라고 강조했던 것이 사라지고 우선순위 없이 부부의 일치(사랑)와 생명 전달이 혼인의 목적이라고 천명한 것이 있다. 또한 부부 행위 또는 부부의 사랑은 “가장 인간적인 사랑”이며, “친밀하고 정결하게 서로 결합하는 행위는 아름답고 품위 있는 행위”라고 긍정

적으로 묘사한 것도 과거 교회의 태도와 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49~50항).

「사목현장」은 당시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고 피임이 만연해 있고 낙태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현상을 염두에 두었기에, 현대의 생활조건이 자녀의 수를 늘리고 충실한 사랑과 공동생활을 이루기에 어려운 환경임을 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느님의 법을 잘 따르라고 촉구한다. 즉 “생명은 임신(수정)의 순간부터 최대의 배려로 보호받아야”하며, “낙태와 유아 살해는 흉악한 죄악”임을 지적한다. 부부는 “상호 중여와 인간 출산의 온전한 의미를 보전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살아야하며, 이를 위해 교도권이 배척하는 산아조절 방법을 피하며 정결의 덕을 닦아야 한다고 권고한다(51항).

## 2.2. 교황 바오로 6세의 「인간 생명」

공의회가 끝난 지 3년 후인 1968년에 발표된 교황 바오로 6세의 「인간 생명」은 ‘올바른 산아 조절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것처럼 60년대 대중화 된 피임을 교회에서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황은 부부 행위에서 부부의 일치(사랑)와 생명 전달(출산)이라는 두 가지 의의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 혼인을 제정하신 하느님의 뜻이며 계획이라고 천명한다(12~13항). 따라서 그는 부부 행위의 전 과정에서 피임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도 배격하며, 다만 자녀의 터울을 조절해야 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생식능력에 내재하는 자연 주기를 이용하여 불임기에만 부부 행위를” 하는 것은 도덕률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자연 질서 과정을 방해”하는 피임과는 달리 자연주기법은 “자연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16항).

한편 교황은 그보다 앞선 장에서 출산은 하느님 창조 사업에 동참하고 협조하는 초자연적인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며(7~8항), 부부로서 나누는 사랑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한다(9

항). 첫째, 부부의 사랑은 “완전히 인간적(human) 사랑”인데, 그 의미는 부부의 성적 사랑이 동물처럼 본능이나 충동이 아니라 인격의 특성인 “자유의지(free will)의 행위”이며 부부는 이를 통해 서로 “하나의 마음, 하나의 영혼같이 되어 인간적 완성을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이다. 둘째, “전체적인(total) 사랑”이다. 부부는 어떤 부당한 제한 없이 또 “자기만의 편리도 찾지 않고” 모든 것을 나누는 특별한 형태의 인격적인 우정이다. 부부는 배우자에게 무언가를 받았다는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 자신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며, 자신을 그에게 줌으로써 그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기뻐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배우자의 선익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는 태도이다. 셋째, “죽기까지 충실하고(faithful) 독점적(exclusive)”인 사랑이다. 그들은 자유롭게 의식적으로 혼인의 유대를 맺는 것이며, 이 유대는 평생 동안 좋을 때든 나쁜 때든 풀릴 수 없다는 것이다. 교황은 비록 이것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세기를 통해 많은 부부가 보여준 모범은 이런 신의는 혼인의 본질에 따르는 것이며 거기서 깊고 지속적인 행복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증명해준다”고 강조한다. 넷째, “이 사랑은 결실 풍부한 것”(fruitful)이다. 부부의 사랑은 흘러 넘쳐 새 생명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 창조로 이어지는 것과 같다. 사랑의 결실인 자녀들은 부모들을 신적 신비를 체험하게 하고 완성으로 이끌어 주는 소중한 선물인 것이다. 교황은 이처럼 부부 사랑의 본질은 자유의지로 자신을 배우자의 선익을 위해 조건 없이 온전히 충실하게 내어주는 가운데 부부의 일치를 이루며, 생명 전달이라는 자연법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가르친다.

### 2.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권고 「가정공동체」

1981년에 발표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권고 「가정공동체」는 1980년 9~10월에 가정을 주제로 열렸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후속 문헌이다. 교황은 서론에서 현대의 어느 제도만큼이나 ‘가정공

동체' 역시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주는 변화의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많은 가정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확신을 잃고 혼란을 느끼거나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의 궁극적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무지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황은 신앙으로 비추인 “혼인과 가정의 위대한 가치와 깊은 의미”를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으로 선포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하며(3항)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통하여 ‘복음적 식별’을 행사함으로써 세상 안에서 “혼인과 가정에 대한 진리 전체와 온전한 존엄성이 보존되고 실현되도록 하나의 정향(定向)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5항).

「가정공동체」에서 교황은 “기본 가치의 붕괴로” 인한 현대 가정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배우자 상호 관계에서 독립성에 대한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그릇된 개념, 부모와 자식 사이의 권위 관계에 대한 심각한 오해, 가치 전달에서 가정이 겪는 구체적 난관, 이혼의 증가, 인공유산의 폐해, 불임 수술의 증가, 피임 사고방식의 출현 등”을 언급한다. 교황은 이런 현상의 바탕에는 “관념의 타락과 더불어, 자유의 개념이 혼인이나 가정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능력으로 체험되기보다는 흔히 타인에게 해로워도, 자신의 이기적 안녕을 위한 자기주장의 능력으로 체험되는 경향이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그는 제3세계의 여러 나라는 생필품의 부족으로 기본적인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데 반해 부유한 나라에서는 “과도한 풍요와 소비 풍조”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협하는 하나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한다(6항).

교황은 당시 주교 시노드가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본래 계획을 깊이 고찰하기 시작”했고 마태오 복음 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처음으로 돌아갔다”고 언급했는데(10항), 이는 교황 자신이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수요일현에서 행한 ‘몸의 신학’ 교리교육의 주제와 상통하는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지는 「가정공동체」 2부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

에서 교황은 창세기에서 사랑이신 하느님의 모상으로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기에 “남자와 여자의 인간성 안에 사랑과 일치 의 소명”이 주어졌으며 그리스도교의 계시는 그 사랑의 소명이 구체적으로 동정(독신)이나 혼인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인정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남녀가 부부에게만 유보된 행위를 통하여 서로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성적 행위는 “결코 순전히 생물학적인 것만은 아니고 인간의 가장 깊은 존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보류하지 않고 서로에게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사랑의 행위는 새 생명의 탄생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가치가 담겨있는 행위가 가능한 ‘장소는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선택된 부부 사랑의 계약인 혼인뿐”인 것이다. 이 “혼인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하느님 친히 의도하신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 제도는 단순한 형식이나 사회의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 하느님 계획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 본성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주관주의나 상대주의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11항).

「가정공동체」 3부에서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역할’을 다루는데, 주교 시노드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일반적인 임무를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일치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부부의 불가해소성, 정결과 충실함의 가치,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 봉사 및 화해, 남녀의 동등한 존엄과 모성 존중, 노인의 역할 등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가정은 생명에 봉사해야 한다. 부부는 생명을 전달함으로써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자녀 수를 제한하기 위해 불임수술이나 낙태 등 공권력에 의한 폭력적 개입을 배격하며, 회칙 「인간 생명」에서 제시된 출산조절에 관한 가르침을 재확인하고 이 가르침이 더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부모는 생명을 준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셋째,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 핵심세포로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참여해야 한다. 가정 구성원들은

가정 안에서 ‘거저 줌’의 법칙과 사회 공동체에 필요한 미덕과 가치를 훈련함으로써 비인간적인 사회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형태로 공동체에 봉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그리스도인 가정은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 나라 건설에 기여한다.

마지막 4부는 가정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어렵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은 가정들을 위해 더욱 활동적”으로 사목적 관심을 보이며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촉구한다. 교황은 충실한 혼인준비부터 혼인식의 품위와 규정준수, 혼인하려는 이들의 신앙상태, 혼인 후 공동체에서의 봉사를 위한 훈련까지 고려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이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와 이를 위한 교회의 각 구성원의 역할도 규정한다. 또한 다양한 이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정을 위한 사목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는데, 특히 “종교적 의미와 흔히 사회적 의미에서도 비정상적 상황”라고 할 수 있는 ‘실험 혼인’ ‘자유 혼인’(제도적 유대가 없이 맺어진 결합), ‘사회 혼인만 하는 가톨릭신자’ ‘이혼하였지만 재혼하지 않은 사람’ ‘이혼한 뒤 재혼한 사람’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언급하였고, 이밖에도 가정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황(극도의 가난으로 무주택, 혼음 등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당국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2.4.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가정교서」

국제연합에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선포한 것에 맞추어 가톨릭교회 역시 1993년 12월 성가정 축일부터 ‘가정의 해’를 시작하였는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를 기념하여 전 세계의 가정들을 수신자로 하여 1994년 2월 2일 「가정교서」라는 제목으로 혼인과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담은 문헌을 다시 발표하였다. 교황은 이 교서가 지향하는 것이 가정을 위협하는 이기주의, 공리주의 등과 같은 그릇된 사조를 거슬러 가정이 토대가 되는 “사랑의 문화”(13~14항)와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함(3항)이

라는 것을 밝힌다. 그는 「사목현장」 24항의 말씀, 즉 인간은 “지상에서 그 자체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바라신 유일한 피조물”이며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지 않으면 자신을 완전히 발견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중심 테마로 삼아서, ‘혼인 계약’은 가정 안에서 부부가 자기 자신을 서로에게 온전히 내어주는 ‘인격의 친교’를 이루는 것이며, 자녀 출산으로 완전하게 되는 부부의 친교는 삼위일체의 일치와 친교를 반영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는 오늘날 부부의 친교와 일치를 위한 과업과 “자연적으로 부성과 모성을 지향하는 인간 사랑”(7항)을 위협하고 거부하는 이기심의 경향과 “책임 없는 자유”(14항)는 창조주가 부여한 소명을 저버리는 위기에 처해있음을 지적한다(13항). 그는 가정 안에서 부부의 소명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랑의 문화’를 회복하도록 촉구하면서(14~16항), 사회적으로 가정의 권리가 존중되고, 여성의 가사 노동이 인정받아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언급한다(17항).

후반부에서 교황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그 “위대한 신비”(19항)를 받아들이고 가정에 관한 그리스도의 풍요로운 보화와 그 진리 안에 살아가라고 격려한다(23항).

「가정교서」는 영성적으로 풍요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가정공동체」에서 강조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지나치게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서 일반 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그 메시지가 전달될지 의문이 드는 문헌이다.

### 3. 「사랑의 기쁨」이 가르치는 ‘혼인과 가정’의 의미

기존의 혼인과 가정, 사랑과 생명에 관한 교회 문헌들이 혼인과 가정의 신적 기원, 거룩함과 존엄성을 강조하며 신자들이 현대의 그릇된 사조의 영향에서 벗어나 부부의 책임과 소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를 것을 강조했다면, 「사랑의 기쁨」은 현실에서 그 가르침을 잘 따르지 못하거나, 경제사회적, 혹은 심리적인 어려

움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에서 주어지는 은총과 기쁨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랑의 기쁨」은 서론과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가정의 소명’에 대한 내용인 3장을 다루고 나서 ‘부부의 사랑’에 관한 내용인 4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3장에서 요약하면서 시노드 교부들의 의견을 함께 언급하겠다고 밝힌다. 교황은 교회의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려 하지 않고, “당신이 만나시는 사람들을 사랑과 자애의 눈길로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길처럼 오늘날 가정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자는 태도를 제안하였다(60항). 이 글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기존의 교회 문헌에서 주로 다루었던 가톨릭의 혼인관, 출산과 자녀 교육, 자연주기 등과 관련된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것은 간단히 언급하고, 「사랑의 기쁨」에 나타나는 고유한 표현을 중심으로 ‘혼인과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3.1. 예수님께서서는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회복시키신다

신약성경은 혼인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으로, 감사히 받기만 하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티모전 4,4)이며, “혼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gift)(1코린 7,7)”라며 혼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은사를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한다(62항). 시노드 교부들은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완고하여 이혼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처음부터 남녀의 풀리지 않는 혼인결합이 하느님께서 원하신 계획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하느님은 당신 은총으로 완고한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시므로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명예’(yoke)가 아니라 ‘은사’(gift)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혼인과 가정을 그 본래의 형태로 회복시키셨다. 혼인 계약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그 의미가 온전히 계시된다. 예수님께서서는 혼인 안에서 친교의 삶

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총을 주신다. 예수님은 카나의 혼인잔치부터 여러 가지 일상에서 많은 가정과 우의를 나누시고 그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셨다. 예수님은 자비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셨는데, 이는 하느님과 의 계약의 회복을 의미한다.

천사의 메시지에 대한 마리아와 요셉이 응답한 신비 등 나자렛 가정에서의 강생의 신비와 예수님의 30년간의 가정생활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희망과 기쁨을 새롭게 하고자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는 신비”(65항)이며 모든 가정에 빛을 비추어 준다. 특히 “나자렛 성가정에서 실천된 사랑과 신의 계약”(요셉의 충실함, 마리아의 겸손과 신앙, 소박함과 꾸밈없음 등)에서 우리는 가정생활을 배우고 가정교육의 기쁨과 소중함, 그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다(66항).

### 3.2. 혼인성사

혼인성사는 “사회적 관습이나 의미 없는 예식, 또는 단순히 약속의 외적 표징”이 아니라 “부부의 성화와 구원을 위해 주어진 선물(gift)”이다. 혼인은 “성소”(vocation)이므로, “혼인하여 가정을 꾸리겠다는 결심은 성소 식별의 결실이어야” 한다(72항).

“성사혼의 근본 요소인 상호 증여(mutual self-giving)는, 교회 안에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와 맺는 근본적인 계약인 세례의 은총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혼인을 약속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온전한 자기 증여와 신의,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개방성을 약속”하는 것이다. 혼인하는 이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혼인의 근본 요소로 인정하며, 그분(하느님)의 이름과 교회 앞에서 서로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73항). “혼인성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리스도인 부부를 만나러 오시’고(73항), 그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부부들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또 죄에서 일어나고, 서로 용서하고, 상대의 짐을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하느님 사랑의 표징이자 부부의 친교 안에 하느님 사랑이 머물게 하신다. 따라서 부부는 부부애와 가정생활의 기쁨 속에서 이미 하느님 나라의 혼인

잔치를 맛보는 것이다.

부부의 성적결합은 “부부가 은총의 삶으로 성장하는 길”이 된다. 부부는 평생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 되어 사랑하고 신뢰하겠다고 서로 합의한 말에서 성적 관계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서로 받아 들이고 내어 주며 평생 동안 삶을 함께”하는 가운데 성사의 힘으로 부부와 자녀가 이루는 부부의 삶 전체가 더 강화된다(74항).

교회의 라틴 전통에서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혼인을 하는 남자와 여자”이며, “그들의 합의와 육체적 결합은 부부가 한 몸이 되게 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의 도구가” 된다(75항). 비그리스도인 부부가 세례를 받으면 “그들의 결합은 자동적으로 성사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 혼인 서약을 갱신할 필요는 없다. “혼인한 부부들은 혼인성사 때 받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전진하여, 마침내 그 신비를 더욱 깊게 이해하고 더 완전한 통합에 도달해야 한다(76항).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조되었으며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계시하는 가운데 인간의 드높은 소명을 밝혀주신다. 특히 “부부의 선익에는 일치, 생명에 대한 개방성, 신의, 불가해소성이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인 혼인에는 주님과와의 완전한 친교로 향하는 길에서 서로가 도움을 주는 것이 포함”된다(77항).

### 3.3. 생명의 전달과 자녀 교육

“혼인은 ‘생명과 사랑의 내밀한 부부 공동체’이며, “부부 결합은 ‘그 본질적 특성으로’ 출산을 지향”한다(80항). 생명의 지성소인 가정에서 “생명이 거부되고 파괴된다면 이는 참담한 모순”이다. “인간 생명의 가치는 위대하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라고 있는 무고한 태아에게서 그 생명권을 빼앗을 수 없으며, 육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내세우며 태아의 생명을 없애는 결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목적이고 결코 다른 인간의 ‘소유물’로 간주될 수 없”다. “가정은 생명의 마지막 단계까지 포함하는 모든

단계에서 인간 생명을 보호”하는 곳이므로 낙태 거부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양심적 거부의 도덕적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켜야 한다(83항).

자녀 교육은 현대에 어렵고 복잡한 것이 되었지만, “전반적인 자녀 교육이 부모의 ‘가장 중대한 의무’이며 또한 ‘제1차적인 권리’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84항). 국가나 학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는 자기 신념에 따라 자기 자녀에게 제공되기를 바라는 교육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84항). 교회는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관하여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소중히 여기고 [...] 자기 자녀 교육의 참된 봉사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85항).

「사랑의 기쁨」 부부의 사랑의 결합이 가져오는 열매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며 ‘제3장 가정의 소명’을 끝맺는다. “사랑의 결합으로 부부는 부성과 모성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계획, 시련, 기대, 근심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돌보며 용서하는 법을 배”우며, “행복한 순간을 함께 보내며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지해” 준다. “이렇게 서로 거저 주고받는 선물의 아름다움,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특별하고 대체 불가능한 가정 성소에 응답하여 얻게 되는 열매들”이다(88항).

#### 4. 「사랑의 기쁨」이 가르치는 ‘혼인의 사랑’의 의미

프란치스코 교황은 먼저 “혼인성사의 은총은 무엇보다도 ‘부부의 사랑을 완전하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89항). 그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도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참된 사랑의 특성’을 전하는 코린토 전서 13장 4~7절에 나오는 각 구절을 그리스 원어의 뜻풀이와 함께 세세하게 설명한다(90~119항).

#### 4.1. 코린토 전서 13장 ‘사랑의 찬가’

첫째로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마크로 티메이’는 단지 견뎌 낸다는 의미라기보다 하느님께서 죄인에게 자비하시고 분노에 더디신 것처럼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품성”을 보여주는 단어이다. 교황은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 타인의 학대나 폭력을 용인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사고를 바꾸고 인내심을 키우라는 의미라고 풀이한다. 이는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또는 “내가 바라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충동적으로 화내지 않으며, “그를 이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이다(91~92항).

둘째로 ‘사랑은 친절합니다’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크레스투에타이’는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크레스토스’에서 파생된 것인데, 앞에 나오는 ‘참고 기다리다’를 보완한다. 즉 앞의 단어가 수동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반대로 능동적인 측면에서 “다른 이와 활발하고 창의적인 상호작용”을 가져오는 활동이며 “다른 이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을 주는 사랑이다. 이는 감정이 아닌 행동의 사랑이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내어주는 기쁨이 있는 사랑이다(93~94항).

셋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젤로이’는 시기, 질투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랑은 다른 이의 행복을 썬낼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된 사랑은 다른 이의 성공을 존중”하며 “질투하는 쓸쓸한 감정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참된 사랑은 모든 이가 저마다의 삶에서 서로 다른 선물을 받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준다. 하느님 아버지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니 그들이 누리는 행복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이다. 동시에 이 사랑은 타인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불의도 거부한다(95~96항).

넷째로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에서 앞에 나오는 그리스어 ‘페르페뤼에타이’는 “자만, 곧 현학적이며 다소 공격

적인 태도로 다른 이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마음”을 뜻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 반대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자제하고 상대방에게 집중한다. 이어 나오는 그리스어 ‘피시오우에타이’는 오만함 또는 교만하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타인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랑은 “약한 이들을 이해하고 돌보며 감싸 안아” 준다. 교황은 가정에서 지배와 권위 경쟁의 논리는 사랑을 사라지게 한다고 지적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려면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을 길러야” 한다고 권고한다(97~98항).

다섯째로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에는 그리스어 ‘아세모네이’가 사용되었다. 사랑은 불손한 행동이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거나 엄격하게 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과 행동과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이가 되는 것도 의미”하며, 사랑받을 만한 몸가짐은 사랑의 필수 조건이다. “날마다 ‘다른 이의 삶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신뢰와 존중을 더욱 다지는 감수성과 예의바른 태도를 필요로’ 하며 “실제로 사랑이 더 내밀하고 깊어질수록 상대방의 자유를 더욱 존중해 주고,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더 기다려 줄 수 있어야”한다. 또한 타인과의 참된 만남을 위해서는 “다른 이를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타인의 단점과 실수를 즉각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점을 참아주고 위안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유대를 형성하고 관계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99~100항).

여섯째로 ‘사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에서는 그리스 단어를 소개하지 않고, 이 사랑은 자기 것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너그럽게 타인을 돌본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타인에 대한 헌신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랑에서 으뜸인 어머니들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처럼 사랑은 “정의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무상으로” 베푸는 것이며, 타인을 위

해 목숨을 내놓는 최고의 사랑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다 (101~102항).

일곱째로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에서 ‘성을 낸다’에는 그리스어 ‘파로키네타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외부의 어떤 것에 자극을 받아 분노가 치미는 내적반응을” 가리킨다. 앞서 첫째로 나온 ‘참고 기다린다’가 타인의 잘못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서의 분노를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다른 이를 적으로 여기며 자신을 방어하려는 “드러나지 않는 분노”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내적 적대감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고립시킨다. 교황은 “갑작스럽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감지하는 것과 그 화에 굴복하여 그것이 우리 태도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평화롭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를 마무리하지 말고 대신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고 하느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기도하라고 권고한다(103~104항).

여덟째로 ‘사랑은 용서합니다’(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로기제타이 토 카콘’은 ‘악을 마음에 새기다’ 또는 ‘앙심을 품다’나 ‘앙갚음하다’를 뜻한다. 그 반대는 ‘용서’이다. “배우자의 어떤 실수나 과오가 사랑의 유대와 가정의 안정”을 해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동일한 잣대로” 재려고 한다면 “다른 이의 모든 잘못에 대하여 지나치게 반응하는 위험이” 있고,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으려는 정당한 욕구가 “도리어 복수에 대한 끊임없는 집요한 갈증으로 변하게” 될 수 있다. 우리는“이기심, 불화, 긴장, 갈등이 얼마나 심하게 가정의 일치를 침해하고 때로는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히는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가정의 일치를 위해서는 가정 구성원들이 “이해, 인내, 용서, 화해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관대한 개방성을” 지녀야 한다. 타인을 “용서할 수 있으려면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체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우리 자신이 하느님께 용서 받았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느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체험을 전제”한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애를 체험한 사람은 그런 사랑으로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다(105~108항).

아홉째로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에서 사용된 그리스말 ‘카이레이 에피 테 아디키아’는 “다른 이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인간의 사악한 태도”이다. 이어서 나오는 반대 의미의 그리스어 ‘신카이레이 테 알레테이아’는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하는 것, “다른 이의 존엄이 인정받고 그들의 능력과 선행이 보상받을 때, 우리가 다른 이의 좋은 일에 기뻐한다는 의미”이다. 이 태도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배우자와 비교하며 경쟁하는 이들, 타인의 실패에 기뻐하는 이들에게는 불가능하다. 하느님께서서는 타인의 행복에서 기쁨을 느끼는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가정은 언제나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축하해 줄 것이라고 여기는 곳이어야 한다(109~110항).

열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에 나오는 그리스어 ‘판타 스테게이’는 단순히 악을 참아준다는 것과는 다르며, 다른 이가 잘못을 하였더라도 ‘침묵을 지키는 것’, 즉 “판단을 자제하고 지나친 심판을 하려는 경향을 억제한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하며 배우자의 약점이나 잘못이 아닌 좋은 점을 드러내 보이려고 노력”한다. 이는 “단순히 배우자의 문제나 약점을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과 잘못을 더 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임을 명심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빛과 그림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상대방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능력껏 최선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어주는 것이다. “그는 신적 존재의 역할을 할 수도 없으며 나의 모든 요구를 들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랑은 불완전함을 지니면서도 “용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배우자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111~113항).

열한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판타 피스튜에이’의 ‘믿음’(belief)은 엄밀한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뢰’(trust)라는 일반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신뢰는 상대에 대한 “통제, 소유, 지배를 단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는 자율성을 키우고 세상과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게 해 주며, 인간관계를 풍요롭고 넓게 해”준다. 배우자들은 이렇게 하여 서로 “언고 알게 된 것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이런 자유를 통해 서로에게 충실하고 솔직해 질 수 있다. 사실 배우자가 상대를 의심한다면 그에게는 “비밀을 간직하고 자신의 잘못과 약함을 숨기며 본래의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인 척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반대로 견고한 사랑의 신뢰가 있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소임과 위선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다(114~115항).

열두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판타 엘피제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 곧, “상대방이 변하여 성숙해지고 놀라운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몰랐던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의 희망”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록 어떤 일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쩌면 하느님께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악에서 어느 모로 선을 끌어내신다고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 희망은 “죽음 건너편에 있는 삶에 대한 확신”까지 담고 있기에 “그 온전한 의미를 드러”낸다. 하늘나라의 충만함,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우며 빛나는 인간의 참된 본질을 깨닫게 되면 세상에서의 고통을 넘어서는 시각을 지니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완성을 고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116~117항).

열세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판타 히포메네이’는 “모든 시련을 견디어 낸다”는 뜻으로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지속적인 굳센 마음으로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 것”을 말한다. “사랑은 일종의 굵기지 않는 영웅 정신, 곧 모든 부정적인 흐름에 맞서는 힘,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선을 위한 결단을 보여” 준다. 교황은 “모진 박해와 굴욕 가운데에서도 형제적 사랑을 선택할 것을 거듭 강조”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인용하며 증오에 증오로 맞서지 말고 “누군가는 강한 신앙과 도덕성으로 악의 고리를 끊어 버리고 세상의 구조 자체에 그 강력한 사랑의 요소를 심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가정생활에서도 결코 분노나 상처 주거나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에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사랑을 위협하는 악과 싸울 수 있는 사랑의 힘을 키우라고 권고한다(118~119항).

#### 4.2. 부부 사랑(conjugal love)의 증진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제 ‘사랑의 찬가’로 “부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부부 사랑은 남편과 아내를 일치시켜주는 사랑이며, 이는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거룩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명료해”진다고 말한다. 그는 부부 사랑은 “우정의 파스함과 육체적 사랑의 열정이 합쳐진 것”이지만 “감정과 열정이 식어도 지속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열거한 부부 사랑의 여러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필자 나름대로 제목을 붙여 정리하였다.

##### 1) ‘삼위일체의 사랑과 일치를 반영하는 부부 사랑’(120~122항)

“부부 사랑은 남편과 아내를 일치시켜 주는 사랑이며, 이는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거룩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명료해”진다. “이는 영적이며 헌신적인 ‘애정의 결합’으로 우정의 파스함과 육체적 사랑의 열정이 합쳐진 것이지만, 감정과 열정이 식어 버려도 지속될 수 있는” 사랑이다. 이런 “강한 사랑은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며, 십자가에서 당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와 인류의 깨지지 않는 계약을 반영한 것”이다. 부부 사랑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일치를 반영하는 하느님 사랑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부부 안에 당신 모습과 당신 사랑의 특징을 새겨 주셨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세 위격의 친교이신 하느님의 신비는 혼인의 신비에 반영된다. 물론 한계가 있는 그들에게

이런 일치를 완벽히 재연하라는 엄청난 짐을 지워서는 안 되는데, 이는 하느님이 주신 은혜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통합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가장 훌륭한 우정으로서 평생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123~125항)

“부부 사랑은 좋은 우정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결합”이다. 즉 “상대방의 행복의 추구, 상호성, 친밀함, 온유함, 견고함, 그리고 함께 사는 친구 사이의 유사성”이 들어있다. 사랑이 충만한 혼인성사로 결합된 이들은 이러한 것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어지기를 바란다. 혼인 서약의 견고한 결합은 인간 본성 안에 뿌리를 두며 하느님께 드리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런 서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혼인은 늘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평생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누군가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발견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충실한 것이 되려면 “그 사랑을 강화하고 드높여 주는 은총의 선물이 필요”하다.

3)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기쁨과  
아름다움을 나누는 사랑’(126~130항)

혼인에서 쾌락 추구에만 지나치게 매달리면, 다른 종류의 만족, 즉 다양한 기쁨을 누리기 어렵다. 혼인의 기쁨은 슬픔 가운데서도 체험할 수 있고, 함께 우정의 길을 가는 동안 서로를 돌보는 힘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된다. 상대방의 가치를 깨닫고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카리타스’라고 부른다. 그 사랑은 이기적인 소유욕에서 벗어난 온유함의 사랑이며, “나의 욕구를 초월하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본질이 지닌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깊이 바라보고 존중하는 기쁨”이다. 더 나아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사람의 행복

을 위해 노력하게 한다.

“사랑의 미학적 체험은, 상대방이 병약하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외적인 매력이 없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그를 목적으로 여기는 눈길을 통하여 표현”된다. 가정 안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눈길”을 제대로 주지 않을 때 그들은 상처받기 쉽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랑의 기쁨을 키워야 한다. 또한 “삶에서 가장 강렬한 기쁨은 우리가 다른 이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때에 생겨”나는데 영화 ‘바베트의 만찬’에서 감사와 칭찬을 받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다른 한편 기쁨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새로워진다. 부부가 함께 시련을 헤쳐 나가며 노력하는 동안 “부부는 좋은 것을 이루어 함께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거나, 그들이 가진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 얻은 것에서 나오는 기쁨보다 더 심오하고 황홀한 인간적 기쁨은 없”다.

#### 4) ‘혼인의 유대로 책임과 의무를 드러내는 사랑’(131~132항)

교황은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사랑이 혼인 제도의 길을 따르면 그 어떤 위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해 주고 싶”다고 말한다. 이 제도 안에서 “그 안정성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성장의 길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혼인은 외적 형식 이상의 것이지만 특정의 의무가 있는 사랑의 결합에 사회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식을 그 결합에 부여하는 것은 그 결합의 의미를 더 뚜렷하게 만들어준다. 혼인은 충동적 만남이 아니라 “상호 의무와 사랑의 성숙을 보호하고 그 수단도” 되며, “상대방을 위한 맹세가 굳건하고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되며 또한 부부가 사회에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미래라는 모험을 함께 감행할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공적인 혼인서약은 “두 사람이 언제나 서로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매력을 잃어버리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패락이나 이기적인 이익의 기회가 새로 나타난다고 하여도 결코 서

로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 5)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며 성장하는 사랑’(133~135항)

부부의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은 넓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낌없는 말과 더불어 끊임없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세 가지 말은 반드시 필요하고 날마다 이것을 말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적절한 때에 하는 바른 말들은 날마다 사랑을 보호하고 길러” 준다. 이것은 끊임없는 성숙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혼인의 사랑은 “은총의 힘으로 그 사랑을 꾸준히 성장시킬 때에 굳건해진다.” 소비주의 광고처럼 성장하는 데 힘을 주지 못하는 지상의 목가적 사랑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와 결점과 불안전함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랑을 성숙시키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합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6) ‘깊은 대화로 소통하는 사랑’(136~141항)

대화는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하며 키워 나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방법”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며 노력이 필요한 학습과정의 열매”이다. 참된 대화에는 상대방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인내심을 갖고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포함된다. “배우자는 자신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의 고통, 실망, 두려움, 분노, 희망과 꿈을 알아주고 있음을 느끼고 싶어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본심, 그 사람이 깊이 고민하는 것의 중요성, 거칠게 표현된 것이라도 그 말의 본뜻을 알아볼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고민을 이해하며 거기에서 출발하여 더 깊은 대화를 나누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화를 방해하는 나쁜 감정을 잘 조절하고 올바른 언어와 어법을 사용함으로써 의견 충돌이나 상처 주는 일을 피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애정을 보여주고 자기 성

찰로 내적 부요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7) ‘자유와 절제를 동반하는 열정 혹은  
감정으로서의 사랑’(142~149항)

“열정’으로 불리는 욕망, 느낌, 감정들은 혼인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열정은 “다른 이’가 나타나 나의 삶으로 들어올 때 생겨”나며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어떤 대상을 추구하고 행동할 때 경험하게 된다. 열정의 도덕성은 그 열정이 이끄는 행위의 선악으로 결정되는데, 어떤 열정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위한 “자유로운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때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된다. 따라서 “부부 사랑은 모든 정서 생활을 가정 전체에 이로운 것으로” 만들려고 애써야 한다. “구성원들의 정서 생활이, 중대한 결정과 가치를 억누르거나 흐리지 않”고 오히려 모두를 위해 봉사하면서 “저마다의 자유를 존중하고, 이 자유에서 흘러나와 이 자유를 풍요롭고 아름답게 해 주며 더욱 조화를 이루어” 주는 “감수성(sensitivity)으로 변할 때” 가정은 성숙해진다.

여기에는 절제를 포함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교회는 에로스가 귀하지만 그릇된 신격화는 거부한다고 가르친다. 자제력을 잃거나 한 가지 즐거움에 집착하면 그 즐거움은 약해지고 손상되며, 가정 생활에도 해를 입히게 된다. 인간은 열정을 타인을 위하고 자신을 완성하는 것과 같은 아름답고 건강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 이것이 “강렬한 기쁨”(intense enjoyment)의 순간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관대한 헌신, 인내심 있는 기다림, 어쩔 수 없는 피로(inevitable weariness),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 등의 순간과 잘 어울리라는 것이다. 일부 욕망을 거부하는 영적 사조도 있지만 창조주 하느님께서 부부 사랑을 포함하여 인간의 기쁨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신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편협한 경험에서 벗어나 우리의 의식을 확장하여 “욕망을 거부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넓히고 완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8) ‘자신의 몸을 선물로 내어주는 육체적 사랑’(150~157항)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당신의 피조물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기에 “이 선물을 가꾸고 그 선물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 성의 참된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부부의 성적 욕구는 경시의 대상이 아니며”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성은 쾌락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어로,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거룩하고 침해할 수 없는 가치로 상대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육체적 사랑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성의 표현이” 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몸의 신학 교리에서 남녀의 서로 다른 몸은 “풍요와 출산의 원천”일 뿐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바로 “그 사랑으로 인간은 선물이” 된다고 가르친다. “건전한 성적욕구는 비록 쾌락의 추구하고 결부되어 있지만, 언제나 경외의 마음을 전제로 하기에, 그러한 충동을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의 성애적 차원(the erotic dimension of love)은 약이나 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부부의 만남을 아름답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여겨야” 한다.

그러나 “성이 종종 비인간화되고” “자기주장과 개인적 욕망과 본능의 이기적 만족을 위한 기회와 도구로 전락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만족감을 주는 한, 종종 다른 이의 육체를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고, 매력이 사라지면 거부해 버”린다. 이런 성의 왜곡으로 “상대방의 존엄과 사랑의 소명을” 사육 아래 묻어 버리는 결과가 여전히 존재한다.

혼인에서도 “배우자의 조건이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거나 강요하는 부부행위는 참된 사랑의 행위가 될 수도 없고 따라서 부부관계의 바른 질서가 요구되는 내용에 위배된다”고 「사목현장」(49항)은 말하고 있다. “부부의 결합의 행위가 ‘참으로 인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이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성의 본질에 맞갖게”된다. 한편 성애의 왜곡을 거부하는 것이 성에 대한 경멸이나 무시가 되어서도 안 되며 자신의 개인적 요구나 만족은 포기하고

상대방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희생을 혼인의 이상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참된 사랑은 또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취약함과 부족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진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애무, 포용, 입맞춤, 성적 결합을 통한 사랑의 육체적 표현”도 수용해야 한다.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받기도 하여야 한다.”

또한 서로에게 속한다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부인하는 지배로 변해서는 안 되며, “모든 형태의 성적 굴종은 반드시 거부되어야” 한다. “서로 순종하십시오”(에페 5,28)라는 바오로의 당부는 부부가 “신과의 존경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호 소속”의 정신을 의미하며 “이러한 부부의 우정을 위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별”하고 서로 충만하도록 보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 9) ‘동정성에 비추어 본 부부의 사랑’(158항~162항)

혼인을 하지 않은 이들은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 직업 생활에 힘을 쏟으며 자신의 재능을 자신과 봉사 등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한다. “동정성은 사랑의 한 형태”이며 “하느님 나라의 중요성과 그 선포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는 표징”이다. 동정성이 혼인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한 것이 아니며 각자 고유한 은사를 받아 서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복음적 권고를 수용하며 온전해 질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동정성은 상대방을 소유할 필요 없는 사랑의 상징적 가치를 담고 있어서 하늘나라의 자유를 반영”하는데, 이는 “부부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사랑에 비추어 하늘나라의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여정으로서 부부사랑을 실천하라는 초대”이다. 동정성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표징”이라면 혼인은 지상생활을 하는 이들을 위한 역사적 표징,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지상의 그리스도의 표징”이다. 이처럼 “동정과 혼인은 사랑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음을 드러낸다.

또한 “독신은 안일한 고독이 될 위험”이 있는데, 헌신적인 혼인 한 이들의 삶의 증언은 동정으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성실성의 구체적 표징이 될 수 있다. 즉 “배우자가 육체적으로 매력이 없거나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또 배우자를 떠나도록 만드는 유혹이 많아도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며 끝까지 헌신하는 부부들의 모범은 “참된 사랑을 하는 이의 존엄”으로서 빛나며, “독신 생활을 하는 이들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더욱 헌신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위한 봉사로 나아가도록 초대”한다.

#### 10) ‘죽기까지 충실한 부부의 사랑’(163~164항)

수명의 연장으로 친밀하고 배타적인 부부의 관계는 40년 이상, 심지어 60년까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의 결심을 늘 되풀이하여 새롭게 선택되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난다. 부부는 더 이상 강렬한 성적 욕망이 없어도 여전히 서로 속해 있고, “자신의 삶과 역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뻐”하는 관계이다. 이에 따른 만족과 고유한 애정 안에서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고 늘 깊은 친밀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부부가 맹세하는 사랑은 모든 감정, 감성, 마음의 상태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한평생 지속되는 마음의 결단이 따르는 좀 더 심오한 의지”이다.

노화로 육체적 모습이 변화더라도 사랑의 매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부부는 배우자의 고유한 개성과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넘치는 사랑으로 상대방에 대한 속함의 결심을 늘 새롭게 한다. 이러한 결심의 고귀함은 “혼인 사명의 수행에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켜” 주며,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새로운 양식의 혼인 유대를 찾아내고 발전시켜 나가게 한다.

## 나가는 말

프란치스코 교황은 구체적 현실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리스도인 부부가 처한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6)</sup> 특히 세상에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할 사명이 있는 우리 교회가 “순전히 권위로만 규범을 강요”하고 “혼인과 가정을 선택하여야 하는 이유와 동기를 제시하는 데에” 책임과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35항). 또한 “혼인이 출산의 의무만을 유독 강조한 채로 제시되어 혼인 결합의 목적에서 사랑을 키워 나가라는 부르심과 상호 도움의 이상이 가려지게”된 것과, “혼인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인위적인 신학적 이상, 곧 실제 가정의 구체적 상황과 현실적 가능성에 동떨어진 것으로 제안”해 온 것이 혼인의 매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한다(36항). 그리고 세속의 문화적 타락에 대한 경고도 필요하지만 교리를 강조하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 것 보다 오랜 세월 가정의 갈등을 극복해온 부부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습을 담은 메시지를 사목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참된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것,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게 해 주는 적절한 언어와 동기와 증언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38~40항). 교황은 코린토 전서 13장 4~7절에 나오는 각 구절을 그리스어 원문에 대한 세세한 해설과 함께 참된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현실이나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과 적절한 언어 표현으로 함께 풀어내고 있다. 이런 교황의 노력은 독자들에게 혼인과 사랑에 관한 더 깊은 깨달음과 실천적인 변화로 초대할 수 있을 것이다.

코린토 전서의 ‘사랑의 찬가’를 통해 사랑의 본질과 실천적 측면을 살펴본 후 교황은 부부 사랑이 어떤 특성을 지니며 또 실질적으

6) 참조: 피에트로 M. 스키아보네, “「예수님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신다」, 「사랑의 기쁨」, 식별과 그리스도인의 성숙», 『치빌타 카톨리카』, 한국어판 제3권(2017년 가을), 도서출판 이나시오영성연구소, 108~110쪽.

로 어떻게 부부 사랑의 기쁨을 키워나가야 하는 지 “구체적 상황과 현실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가장 훌륭한 우정으로서 평생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 ‘쾌락을 넘어서는 기쁨과 아름다움을 나누는 사랑’ ‘혼인의 유대로 책임과 의무를 드러내는 사랑’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며 성장하는 사랑’ ‘깊은 대화로 소통하는 사랑’ ‘자유와 절제를 동반하는 열정 혹은 감정으로서의 사랑’ ‘자신의 몸을 선물로 내어주는 육체적 사랑’ 등의 주제는 기존의 딱딱한 교리적인 설명과는 분명 다른 친근하고 마음에 와 닿는 적절한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의 기쁨」이 반포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이 문헌의 중요성과 실천적인 가르침이 우리나라의 신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적어도 이 글에서 정리한 ‘혼인과 가정’ 그리고 ‘부부의 사랑’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이 사제들의 강론, 혼인 교리나 예비자 교리 등에서 자주 언급되고, 위기를 겪는 부부들이 자신들의 사랑의 개념과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1. 교회 문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개정판).  
바오로 6세, 「인간 생명」,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8.  
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가정공동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3.  
요한 바오로 2세, 「가정교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

### 2. 정기간행물

- 피에트로 M. 스키아보네, “「예수님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신다」; 「사랑의 기쁨」, 식별과 그리스도인의 성숙」, 『치빌타 카톨리카』, 한국어판 제3권(2017년 가을), 도서출판 이냐시오영성연구소, 107~117쪽.

### 3. 모바일 자료

- 박준용, “결혼을 졸업한다 [...] ‘졸혼(卒婚)’을 아시나요”, 2016.5.23, [www.sisapress.com](http://www.sisapress.com).  
통계청, 2017년 혼인 이혼 통계, 통계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2018.3.21).

## 국문초록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반포한 그의 교황권고 「사랑의 기쁨」에서 2014~2015년 주교 시노드에서 논의했던 가정 관련 주제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보다 사람들의 마음과 닿기 쉬운 대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하였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와 관련하여 가정과 부부 사랑의 회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키우기 위해 이 교황권고에서 다룬 제3장 가정의 소명과 제4장 혼인의 사랑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이 논문은 혼인과 가정, 부부 사랑을 주제로 한 교황의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이미 1965년 「사목헌장」부터 발표된 가정과 생명에 관한 교회 문헌의 가르침들을 소개하며 비교하였다. 오늘날 복잡한 가정의 위기와 여러 심각한 문제들에 관하여 교황은 매우 사목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친근한 표현과 부드러운 태도로 제시하였고, 동시에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정신을 상기시키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교황은 특히 코린토 전서 13장 4~7절에 나오는 각 구절을 세세하게 해설하며 참된 사랑의 특성을 구체적인 현실이나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과 함께 풀어냄으로써 독자들에게 깊이 있는 깨달음과 실천적인 변화로 향하는 도움을 제공한다.

코린토 전서의 ‘사랑의 찬가’를 통해 사랑의 본질과 실천적 측면을 살펴본 후 교황은 부부 사랑이 어떤 특성을 지니며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부부 사랑의 기쁨을 키워나가야 하는 지 “구체적 상황과 현실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가장 훌륭한 우정으로서 평생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 ‘쾌락을 넘어서는 기쁨과 아름다움을 나누는 사랑’ ‘혼인의 유대로 책임과 의무를 드러내는 사랑’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며 성장하는 사랑’ ‘깊은 대화로 소통하는 사랑’ ‘자유와 절제를 동반하는 열정 혹은 감정으로서의 사랑’

‘자신의 몸을 선물로 내어주는 육체적 사랑’ 등의 주제는 기존의 딱딱한 교리적인 설명과는 분명 다른 친근하고 마음을 울리는 통찰력과 전망을 담고 있다.

▶ 주제어: 교황 프란치스코, 사랑의 기쁨, 혼인, 부부 사랑, 사랑의 찬가.